'전통을 이어 미래로! 열정을 모아 하나로!'

(주)마니커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그 뜨거운 현장을 가다

편집부

(주)마니커(회장 한형석)가 계육업체 최초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다른 업종에는 50년, 100년 된 기업도 여럿 있지만, 국내에서 육계 계열화사업이 시행되면서 닭고기가 브랜드화된 것이 1980년대이고, 그 무렵에서야 전문기업이 탄생한 것을 감안하면 마니커의 역사가 곧 국내 계육산업의 역사가 되는 셈이다.

생각해보면 4반세기라는 그리 길지 않은 세월 동안 닭고기는 반도체만큼 성장하고, 쌀만큼 기여한 것이다. 그 중심에 국내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가 있었다.

오늘 그 주인공의 생일축하파티 현장을 찾아 계육산업의 역사를 더듬어본다.

지난 11월 13일 늦가을 주말, 경기도 용인공설운동장에서는 꼭두새벽부터 짙은 안개를 뚫고 축구경기가 열리고 있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이 적힌 대형 에드벌룬에서 마니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형석 회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1천여명의 마니커가족은 이날 하나가 되었다.

마니커 창립 25주년 기념 축전 개막식에 앞서 열리는 축구 예선전이었다.

'전통을 이어 미래로! 열정을 모아 하나로!' 라는 슬로건이 적힌 대형 애드벌룬이 땀에 젖은 선수들의 머리 위에서 넓은 운동장을 내려보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우리 계육산업을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과,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로 뭉쳐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엿보였다.

그날은 그렇게 짙은 안개와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과 애드벌룬이 어우러지며 시작되었다.

한형석 회장의 개회선언과 선수대표 선서에 이은 1부 행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계열사, 사업장별 축구, 족구,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계주 등…

1천여 명이 동시에 쏟아내는 열기가 순식간에 운동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모두가 마니커라는 이름의 한가족이고 잠시 후면 따뜻한 동료로, 절친한 친구로 돌아가겠지만 승부는 승부다.

마니커가족이라면 다 안다.

열정적으로 승부를 즐기는 지금 이 모습이 오늘의 마니커를 만든 원동력이고 내일의 마니커를 만들 토양이 될 것임을…

그리고 2부 기념식과 3부 화합의 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행사는 한편으로는 진지해지고 한편으로는 더 뜨거워졌다.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형석 회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있고, 체육관을 가득 메운 임직원은 자부심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열정을 모아 하나' 로 되자는 슬로건이 눈 앞에서 현실로 펼쳐진 것이다.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친구는 더 가까워지고 감동은 더 짙어졌다.

초청가수와 어울리고 자신의 끼를 발산하며 동두천과 경산은 하나가 되고, 다 같이 마니커합창을 외칠 때는 가슴으로 뜨거운 소리를 냈다.

사방에 어둠이 내리고서야 다가온 이별의 시간.

하지만 이별은 잠시뿐이다.

5년 후, 10년 후 어쩌면 30년 후에도, 빠르면 내년에라도 이들은 '마니커가족' 으로 남아 다시 만날 것이다.

마니커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가슴에는 열정과 자부심, 머리에는 희망, 그리고 수많은 친구를 남긴 채….